



생의 한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란

김 보 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온 식구가 아픈 배를 잡고 식중독으로 병원을 다녀오고...”

얼마 전 평소 알던 A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저녁 식사 후 부부와 아이들 모두 식중독으로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소연했다. 정말 창피하였다며 얼굴을 붉혔다.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면 모두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일이고, 본인 실수도 아닌 데 왜 그리 창피한지 몰았다.

이유인즉, 병원에 다녀온 후 일 처리 과정에서 명색이 변호사인데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 포기한 것이 가족에게 창피하였다는 이야기다. 사실 식중독으로 소견서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하루 전 날부터 당일까지 다양하게 먹은 많은 음식물 중 어느 것 하나가 원인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청)에서 관여하고 있다.

최근 배달음식서비스와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하고, 해외직구 먹거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식약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수많은 식품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식품 시장에서의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량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전 머지포인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의 판결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2021.8.11. 예고도 없이 머지플러스(주)는 머지포인트 사용을 제한에서 시작되었다.

머지플러스(주)에서 제공하는 ‘머지머니서비스’는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편의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로 각종 소선퍼머스(11번가, 옥션 등)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



그런데 갑작스레 편의점, 마트 등에서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환불 기준을 구매금액의 90%로 정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환불처리도 지연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이처럼 온라인시장에서만 유통되는 신유행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한 예다. 이번 금융감독원 판결로 신용카드 할부 환변권이 인정되어 2억3천만원에 대한 카드 잔여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다행이 현행 법규내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시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었는지 염려된다.

코로나 이후 영화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영화보기를 즐겨하던 지인들은 가끔 본인이 즐겨보던 영화장르를 업체에서 파악하고 관련된 추천 영화들이 계속 올라온다며 어느 사이 온라인 영화 플랫폼에서는 본인의 코드를 물어버림에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본인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주제에 따라 얼마간 영상하던 내용들이 몇 개월 후에도 다시 유튜브에 올라진 것을 보고는 이들이 이미 내 관심사를 알고 있다는 판단에 앞으로의 시대는 법이 아닌 코드가 주류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에 소비자운동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많은 공부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소비자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 역량 강화만을 요구하기엔 합리적이지 못하다.

가장 먼저는 기업이 온라인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보다는 소비자를 존중하고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책임감 있는 기업문화를 확립할 때 기업은 성공한다.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를 톨메이커라고 의식하고 소비자(고객)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새해에는 어떤 소비자 이슈로, 한해가 바쁘지 걱정과 함께 나름 공무적인 냄새가 나지만 내년도 주제를 정해본다.

독자의 창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주 확인해야

종종 교통 홍보·계도근무를 하다보면 단순 안전띠 미착용 위반이 순식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바뀌어 운전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운전자가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알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되어 순식간에 무면허 운전자가 된 것이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3만원 이하,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6만5,000여 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몇몇 운전자들은 적성검사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

고 있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최대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적성검사기간이 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지갑 속에 넣어둔 채 확인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사소한 관심부족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운전자 입장에서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면 안내통지를 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곤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연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연제인지를 확인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운전면허 시험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어렵게 면허를 취득한 만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제때에 적성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재훈(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기자수첩

정치 논리로 민선체육회 기웃거려서는 안돼

“체육회는 잘못이 없다. 개인의 행동이 물의를 빚은 것”

오랫동안 체육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전북도의회 문건위원이 한 말이다.

최근 전북도체육회 관련 전 임원이 특정 도의원과 체육회 직원에게 ‘인사개입 및 조직축소 요구’ 의혹을 빚은 문자메시지 발송 건으로 체육계가 떠들썩했다. 해당 전 임원은 “도정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 다른 의도가 없고, 현재 차기 회장 출마 의지가 1%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정채회의 때 해당 도의원이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회의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건의할 수도 있었던 점과, 특히 행정사무감사 도중 모 직원에게 동일 메시지를 발송 한 것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알고 있다고 언지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도체육회 조직 인사관련 분부장이나 담당과장을 통해 사전에 협의와 제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번 건으로 결국 당사자는 쏙 빠지고 도의회와 도체육회의 갈등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비춰졌다. 해당 도의원은 “현 민선체육회장은 사재를 털어 장학금을 마련하고 불우한 선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회장의 인사권한을 막으려는 뜻이 아니었다”면서 “체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체육회에 박수를 보내며 도의회도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무성한 뒷담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물의를 빚은 전 임원은 민선체육회 이전 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 시절 도체육회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더더욱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인 2023아테마스터즈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회 위원장인 도지사의 임명으로 분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체육인은 “전 임원이 도지사와의 출마에 대한 얘기가 끝난 것처럼 오래전부터 차기 체육회장 출마 의지를 공공연히 밝혔”고 말했다.

옛말에 ‘배말에서는 갓끈, 참외밭에서는 신발끈 매지말라’는 말이 있다.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 정 권
사회부장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국가정책으로 민선체육회 시대가 문을 열게 됐다. 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는 당시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는 당연직이었던 자치단체장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 민선체육회장이 될 것인가가 화두였다.

실제 2000년대 구 전북생활체육회(현재 통합체육회)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선체육회장인 생활체육회의 인건비 예산을 감축해버리는 일이 하다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았을 때도 조직개편을 통해 측근(선거캠프 출신)들을 임직원으로 체육회에 배치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9급의 꿈을 안고 5~10여년 동안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줄줄이 사직을 하게 됐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회가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이유다. 그 조직을 현 민선체육회가 대물림하게 됐다.

이제 도체육회는 시대에 맞게 민선화장이 인사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한다는 평소 도지사의 지론과는 달리 전북도 실무과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장벽에 부딪혀 회장의 권한은 유명무실하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내막을 아는 체육인들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전국적으로 민선체육회는 자치단체와 의회 등 한 몸이 돼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끝지 않은 시선으로 화합을 깨트리고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되면 ‘흠집내기’를 통해 여론을 몰고 가는 일들이 체육계의 화합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명분 없이 못매를 맞는 체육회도 더 이상 버티는 데 한계가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혹여 ‘젓밥’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피땀 흘리는 선수와 지도자, 체육복지를 염원하는 동호인들이 그야말로 ‘갈’이 되는 체육시대가 절실한 시기다. 또 이를 염원하는 체육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내 / 063) 230-5700

FAX / 063)231-83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광고 / 063) 230-5714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인쇄 / 063) 230-5850

경제부 / 063)230-5840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창치부 / 063)230-5821

사진부 / 063)230-5842

자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제보·투고 | 사회현상이나 일상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읍시다. | 홈페이지 | sjbnews.com/커뮤니티/독자투고 게시판 | 이메일 | sjb8282@gmail.com

구독신청안내

063) 230-5712

중부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교리병원, 인후위브아울렛, 인후 한신휴, 유일여고, 기린초, 인후초, 아중리 일대.
010-8640-6855 / 246-6855	

서전주	서신동, 효자동4가(서곡지구)/ 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북부, e편한세상, 서신초, 한일고, 서신중, 전주서초, 여울초, 서일초, 서신중 일대.
010-6278-5085 / 276-0034	

평화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전주교대, 전주교도소
010-8883-5498 / 010-8858-9456	

덕진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우아동1가, 우아동2가, 전북대, 전북대병원, 고숙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솔내고, 우아동3가, 용진동, 완주군청
010-4611-8069	

팔복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촌동, 고량동, 성덕동, 만성지구/ 덕진경찰서, 월드컬링경기장, CB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010-8627-6325 / 214-0300	

남전주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완산동/예수병원, 전주병원, 신흥중, 신흥고, 기전대학, 화산체육관, 근영여고, MBC, 화산풍림, 중화산광진, 석성수벨리스, 남양왕실, 한신휴
010-8883-5498 / 010-8858-9456	

서부	경원동, 고사동, 중암동, 고동, 전동, 진북동, 봉남동, 다가동, 태평동, 서노송동/전주시청, 덕진구청, 시교육청,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해성, sk뷰, 혁신도시
010-9397-2328 / 273-1008	

중화산	효자동1가 일부, 효자동2가~효자동4가, 중화산동/도청, 경찰청, 효자신시가지,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010-2799-1237 / 237-5863	

효자	효자동1가 일부/ 삼천1동~삼천3동, 상신고, 서도프라자, 혜성고
010-8883-5498 / 010-8858-9456	

완주	봉동읍 봉동 지역, 3공단	삼례읍
010-8824-9388 / 010-4013-4853		



새전북신문이 쓰면 大韓民國이 읽습니다.